

지역방송 지원계획, 현장과 함께 만든다

- ‘제3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’ 개최...“정책과제·지원방안에 적극 반영” -

지역방송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.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1일 ‘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’ 마련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및 지역방송사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방송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‘제3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’를 개최했다.

이날 회의는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 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,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지역방송사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우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‘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’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한 뒤 지역 공공미디어로써의 역할 강화, 새로운 미디어 환경 대응,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고민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“지역방송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 문화 및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”면서 “제5차 지원계획이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방송사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‘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’의 정책 과제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방송정책국	책임자	과 장	이동석 (02-2110-1450)
	지역미디어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용원 (02-2110-1417)